

私だけの道

中川 真由

私には、2歳上の姉がいる。姉は小さい頃から勉強も運動も得意で、いつもクラスの中心にいるリーダーのような存在だった。そして、姉の夢は小学生の頃からずっと「医者になること」である。その夢は今も変わらず、現在は医学部で一生懸命勉強している。そんな姉を見ながら育った私は、いつも比べられているように感じていた。私は勉強もあまり好きではなく、運動も苦手だった。友達も多くはなかったが、韓国文化とファッションが大好きなごく普通の女の子だった。

そんな私を見て、両親はよく言った。「お姉ちゃんは将来の夢がはっきりしているのに、あなたはまだ決めていないの?」「将来、何になりたいの?」そのたびに私は心の中で思った。「どうしていつもお姉ちゃんと比べるの?」と。だが今になって思えば、それは私を心配してくれていた親の気持ちだったのだ。将来が見えない娘を不安に思い、何か目標を立てて努力する経験をしてほしかったのだと思う。けれど当時の私は、それを理解できなかった。だから、いつしか「姉には負けたくない」という気持ちが芽生えた。そして、部活も、生徒会も、高校も、すべて姉と同じ道を選んだ。それが“正しい道”だと思っていたのである。

その時から、自分自身の“夢”をつくら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うようになった。本当は、ずっとファッションに興味があった。しかし、医者を目指す姉のいる家庭でそれを言うのが、なんだか恥ずかしくて怖かった。だから私は代わりに、「弁護士になる」「国家公務員になりたい」と言っていた。そう言うと、なぜか安心できた。自分も“ちゃんとした夢”を持っているような気がしたからである。

しかし、大学に入ってから私の世界は大きく変わった。そこには、自分の「好き」をまっすぐに追いかける人たちがいた。地域のためにイベントを企画する学生、働きながら作家として活動する主婦、韓国でプロ1軍を目指して練習する野球選手たち、そして、自分の夢を探しにワーキングホリデーへ行った先輩。みんな、本当に輝いて見えた。何より、自分の人生を愛し、誇りを持って生きている姿がとても素敵だった。そんな人たちを見て、私は考えた。「私は自分の人生を楽しんでいるのだろうか」「私の人生の目標とは何なのだろうか」と。そしてようやく気づいた。姉と私を比べていたのは、両親ではなく“私自身”だったということに。姉は、最初から私のライバルなどではなかった。ただ、自分の夢に向かって努力している一人の人間だったのだ。その事実気づいてから、ようやく本当の夢が見えてきた。

今、私は胸を張って言える。私の夢は「自分のファッションブランドを立ち上げること」である。ただ洋服を作るだけではなく、人々が自分らしさを表現し、自信を持てるようなブランドをつくりたい。そして、そのブランドを日本だけでなく、韓国や世界でも通用するブランドに育てていきたい。私はもう、姉と比べない。代わりに、“昨日の自分”と“今日の自分”を比べながら成長していきたい。私の人生には、私が大好きなものがたくさん詰まっている。それが、私が歩いていきたい「自分だけの道」である。

나만의 길

나카가와 마유

나에게는 두 살 많은 언니가 있다. 언니는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언제나 반 친구들을 이끄는 리더 같은 존재였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의 언니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이었다. 그 꿈은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어져, 현재는 의과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되었다. 그런 언니를 보고 자란 나는 늘 언니와 비교되는 느낌을 받았다. 나는 공부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운동도 잘하지 못했다. 친구도 많지 않았지만, 한국 문화와 패션을 정말 좋아하는 평범한 여학생이었다.

그런 나를 보며 부모님께서는 나에게 자주 물으셨다. “언니는 장래희망이 확실한데, 너는 아직도 결정 못 했니?”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그럴 때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왜 항상 언니와 나를 비교하실까?’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것은 단지 나를 걱정하셨던 부모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안다. 부모님께서는 미래가 뚜렷하지 않은 딸이 불안하셨던 것이다. 그래서 어떤 목표라도 세워보고, 노력하는 경험을 하기를 바라셨던 것이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점점 언니에게 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나는 동아리도, 학생회도, 고등학교 진학도 모두 언니가 걸어간 길을 그대로 따라갔다. 그것이 ‘잘하는 방법’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나는 스스로의 ‘꿈’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사실 나는 어릴 때부터 패션에 관심이 많았다. 하지만 의사를 꿈꾸는 언니 옆에서 패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왠지 부끄럽고 두려웠다. 그래서 대신 부모님 앞에서는 “변호사가 될 거예요.”, “국가공무원이 되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그렇게 말하면 마음이 편했다. 왠지 나도 언니처럼 ‘단단한 사람’이 된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학에 들어가면서 내 인생은 조금씩 달라졌다. 그곳에서 나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 지역을 위해 이벤트를 기획하는 친구, 일을 하면서도 작가로 활동하는 주부, 프로 1 군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훈련하는 한국인 야구 선수들, 그리고 자기만의 목표를 찾아 워킹홀리데이로 떠난 선배까지. 그들은 모두 눈부시게 빛나 보였다. 무엇보다 자기의 인생을 사랑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멋졌다. 그들을 보며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내 인생을 즐기고 있을까?”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일까?”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본 끝에 깨달았다. 언니와 나를 비교하고 있었던 사람은 부모님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언니는 처음부터 나의 경쟁자가 아니었다. 그저 자기 꿈을 향해 열심히 살아가는 한 사람일 뿐이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내 진짜 꿈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내 꿈은 ‘나만의 패션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다. 단순히 옷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 그리고 그 브랜드를 일본에서 시작해, 한국과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브랜드로 키워 나가고 싶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언니와 비교하지 않는다. 그 대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며 성장하고 싶다. 내 인생에는 내가 사랑하는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 그것이 바로 내가 걸어가고 싶은 ‘나만의 길’이다.